

더불어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5. 1. 20.(월) 13:00	배포일시	2025. 1. 20.(월) 13:00 배 포 즉시
위원장	강청희(010-9036-5658)	담당자	사무국장 이주현 (010-8089-1000)

국민적 참사, 보상을 넘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국회토론회,
1월 16일 국민적 참사 지원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점 논의하다.
- 강청희 위원장, “정부의 전담 기구마련과 유가족 자조모임을
결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을 제안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이하 ‘보건의료특위’, 위원장 강청희)는 2025년 1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적 참사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지속적 심리지원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였다(주관: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주최 : 이언주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
- 토론회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선재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한국에서의 재난 및 집단트라우마 대응과 조사: 실태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김 현 미나소타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가 <미국의 재난 관리, 대응과 사례>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 발제가 진행된 이후, 김한나(법무법인 금성 대표변호사 (서초분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이형훈(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조동찬(前SBS의학전문기자, 前한국과학기자협회 부회장), 조원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대해 (대한응급의학회 무임소이사(재난), 차의과학대 구미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토론자로서 참여하며 후속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주요재난 사건은 최근 증가추세. 미국의 경우도 9·11테러 사건 이후 VOICES와 같은 유가족 자조단체,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역할이 증대되고 예산의 독립 편성과 사용 가능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발전하였고, 이 재난 대응 및 회복기능은 물론 사전대비, 완화를 위한 교육 기능이 추가되어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이 확장되는 추세임.
- 국민적 참사 이후 단기대응 차원에서 심리적 응급처치 및 역학조사 코호트 구축 및 지연 발생(6개월 이후 증상 발생) 대상자를 포함한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장기 추적관찰과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정신건강 모니터링 및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추모 및 치유공간 마련이 요구됨.
유가족 자조모임이 사고 진상규명 과정에 처음 시작부터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상호신뢰와 심리적 지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번 토론회 결과, “보상을 넘어 국가에서 보호받는다”는 믿음”을 형성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중지가 모였다. 나아가 “국가적 보호”의 의미를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를 심리, 정신적 질환 문제로 인식하고 정신과 질병 치료를 지원한다는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와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충분하게 분출하고, 함께 나누고 기리는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 및 회복 프로그램의 유기적 운영이 국민 보호의 핵심이 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보건의료특위를 이끄는 강청희 위원장은 “정부의 전담 기구 마련과 유가족 자조모임을 결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였다.

[첨부]

1. 토론회 사진 2매.
2. 포스터 1매 끝.



국민적 참사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지속적 심리지원 방안 국회 토론회



2025. 1. 16.(목) 국회의원회관
오후 2시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이언주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

주 관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내 용 | 국민적 참사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지속적 심리지원 방안

좌 장 | 강창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발 제 | 한국에서의 재난 및 집단 트라우마 대응과 조사: 실태와 나아갈 길

정선재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미국의 재난 관리, 대응과 사례

김 현 미네소타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토 론 | 최대해 대한응급의학회 무임소이사(재난), 차의과학대 구미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조동찬 前SBS의학전문기자, 前한국과학기술자협회 부회장, 前한양대병원 신경외과 전임의

김한나 법무법인 금성 대표 변호사(서초분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국장)

문의 | 사무국장 이주현(010-8089-1000)